

기사입력 2015/04/15 07:29

인쇄하기

한국어, 제 2외국어로 자리매김



SAT-Ⅱ 한국어 문제집 편집모임 참석차 달라스를 방문한 최미영(앞줄 중앙)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이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대학입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국어(SAT-Ⅱ) 응시자가 미 전역 고교생들의 제 2 외국어 선택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AT-Ⅱ 한국어 시험 응시생들의 평균점수도 다른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총회장 최미영)에 따르면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2012년 기준 3,552명으로 중국어(1위, 6,585명), 스페인어(2위, 4898명)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인기있는 선택과목이다.

특히 지난 2014년 SAT-Ⅱ 9개 언어 가운데 한국어의 평균점수는 76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어(758점)와 일본어(695점), 스페인어·프랑스어(664점)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SAT-Ⅱ)가 평균점수와 응시자 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난 1966년 한국어 시험이 개설된 이후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모의고사 실시 등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학교협의회는 제 19차 SAT-Ⅱ 한국어 모의고사를 지난 3월20일~22일에 각 학교별로 실시했다. 이에 앞서 SAT-Ⅱ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달라스에서 출제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또 4월 10일부터 12일에도 달라스에서 SAT-Ⅱ 한국어 문제집 편집모임을 가졌다.

편집모임 참석차 달라스를 방문한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포학생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와 역사를 교육하는 한국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NAKS 임원진(김인숙 NAKS 부회장, 권예순 홍보간사)과 방정웅 SAT-Ⅱ 한국어 전문위원장과 전문위원(강주언 박사, 최연미 박사)등이 배석했다.

방정웅 위원장은 “지난 1997년 제 1회부터 19년 동안의 한국어 응시상황을 분석해 보면 문제가 어렵고 일부 학원들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응시생들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며 “2013년에 조직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난이도와 문형을 분석 학생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문제집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캘리지 보드에서 실시하는 SAT-에 한국어 시험은 매년 11월에 본고사가 실시된다.

박철승 기자

<http://www.koreadaily.com>

POWERED BY **Jo!ns** AMERICA